



서울사대부중.고

Happy Holidays



한줄기회 '역사'가 되다
모교 이은숙 교장 미국 방문
'I Dream, I Can' 프로젝트

동문들을 위한 공감 크루즈

크루즈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닙니다.

공감과 힐링이 있는 여행 - 동문 여러분들을
뉴잉글랜드(미 동북부)-캐나다 크루즈로 모십니다.



◎ 기 간 : 2019년 10월 26일 ~31일 (5박 6일)

◎ 일 정 : New York City

⇒ Halifax, Nova Scotia, Canada

⇒ Saint John for the Bay of Fundy

⇒ New York City

◎ 유람선 : Regal Princess(14만 3천톤)

◎ 인 원 : 선착순 210명(부부동반 환영)

◎ 마 감 : 2019년 6월 25일

◎ 예약 및 문의 : 213-268-2301(김민주)

◎ 주 관 :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





서울사대부중·고 미주동창회보 [제 2 호]

2018년 12월 1일 • VOL. 2

CONTENTS

- 04 | 한줄기회 '역사'가 되다 이완규(6회)
- 06 | 선농합창단 정기 공연
노래하면 '다이돌핀' 듬뿍
- 08 | '다국적' 동기생들의 특별한 단풍여행기 안성주(16회)
- 09 | 류문기(1회) 동문 구순잔치
'부고인상' 수상자(윤상열, 문재숙)
- 10 | 모교 이은숙 교장 미국방문
- 13 | 줄리 정 국무부 부차관보
- 14 | 나의 삶, 나의 이야기 권영덕(6회)
- 16 | 'I Dream, I Can' 프로젝트 김승모(23회)
- 19 | 남가주 동창회 소식
- 20 | 남가주 동교회 소식
- 22 | 지역 동창회 소식
- 24 | 나의 대륙횡단기 노찬용(18회)
- 26 | 동창회 연회비 납부 캠페인

회장 겸 발행인 김민주(21회)
 수석부회장 최완섭(22회) 부회장 손명희(23회)
 감 사 권일준(20회) 재 무 김영태(24회)
 사무처장 강태완(31회)
 편 집 인 박용필(18회)
 편집위원 신용철(29회) 조남중(34회) 신다정(62회)

13347 Fern Pine Circle, Cerritos, CA 90703
 (213) 268-2301 | snubugo2018@gmail.com
<http://socal.snubugo.net>

인사말

“여럿이 모여 하나”



이 정 우 (29회)
뉴욕/뉴저지 동창회장

‘From Many One’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 중 하나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여럿이 모여 하나’쯤이 되겠지요.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인종, 다양한 문화,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 바로 미국이지요.

저희 동창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와 서부, 중서부, 남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부고인’이라는 동질성으로 ‘하나’가 된다고 할까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올 초 미주총동창연합회의 발족으로 이제야 비로소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내년 10월에는 뉴욕에서 연합회 총회가 열립니다. ‘돌잔치’가 되는 셈이지요. 크루즈를 겸해 열리는 관계로 미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본국에서도 관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뉴욕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만큼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고교 평준화 1세대에 속하는 29회 졸업생입니다. 아마 본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평준화세대가 회장이 된 건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느끼지요. 앞으로 평준화 이전과 이후 세대를 아우르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는 그런 동문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줄기회 ‘역사’가 되다

원로동문들 “편안한 모임이었는데...”

이 완 규 (6회)
한줄기회 기획간사 / 초대 총동창회장



시작은 이랬다. 15, 16년전 쯤 인가.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 겸 송년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부 총회순서가 끝나고 2부 여흥순서에서 돈 주고 데려온 사회자(MC)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를 냈다. 가장 나이 많은 기수와 가장 나이 어린 기수에서 한 사람씩 지명, 무대에 불러세웠다. 이렇게 몇 커플이 즉석에서 만들어져 게임을 했는데 마치 부자 또는 부녀 지간,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간의 게임처럼 보였다.

원로들이 어찌 젊은이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사회자는 나이 많은 커플이 탈락할 때마다 저질스런 농담을 섞어 참석자들의 폭소를 유도했다. 수모를 당한 한 선배가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독백처럼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 “늙은이를 데리고 노네.”

또 무슨 스무고개 같은 힌트 노름이었는데 노호준군(5회, 작고)이 사회자의 눈에 띄어 단상에 세워졌다. 게임에서 저 내려오는데 조명이 어두워 하마터면 넘어질뻔 했다. 사회자가 이 순간을 놓칠 리 없었다. “옛 어르신, 조심 조심하십시오”하며 또 다시 폭소를 유발했다. 대형사고가 날 뻔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참석 안하겠다는 그를 우리 부부가 간신히 모셔왔는데 참으로 민망했다. 행사가 끝나기까지 묵묵히 침묵을 지켜 온 노호준군, 귀갓길 차 안에서 딱 한마디 내뱉었다. “앞으로 절대 날 동창회에 데려가지마.” 그러고선 연전 작고하기까지 동창회와 연을 끊었다.

이런 해프닝외에도 동창회의 각종 대소모임에서 느낀 세대간의 차이, 인생관, 시대관, 종교관, 특히 민감한 정치 시사관의 간극 등으로 인해 자칫 큰 논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에 ‘우리 늙은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모임을 따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드디어 2009년 10월의 화창한 가을 어느날, 1회의 류문기 노원 일 두 대선배님을 위시하여 막내인 10회의 이병웅 호성진 김일영 후배에 이르기까지 총 30여 명의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줄기회’ 창립 행사를 갖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최연장자이신 류문기 선배님이 회장으로 그리고 8회의 윤재명 동문이 총무로 선출됐다.

활력이 넘치는 윤 총무가 다음해 행사로 ‘한줄기회/멕시코칸 크루즈’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2010년 10월 윤 총무의 고군분투 결과로 24명의 ‘한줄기회 멕시코칸리비에라 크루즈’가 실현되었다. 연례행사로서 매년 6월 25일을 전후한 토요일, LA코리야타운 중심에 소재한 JJ 그랜드호텔에서 낮 11시부터 3시까지 모임을 가졌다. 2010년부터 지난 6월 30일 모임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으니 모두 아홉차례가 되는 셈이다.

이름하여 ‘한줄기 초여름의 향연.’ 1부 순서는 회장 인사말, 교가 제창 등 여니 동창회 모임과 비슷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교가제창에서 반드시 1절에서 3절 끝까지 부르도록 한 점이다. 본국에서도 교가 전구절을 부른 사실이 없어 신선한 충격이었다. 특히 3절 후반부에 나오는 ‘청량대의 깨끗한 정의의 학창’에서 본국 동창회에서조차 ‘깨끗한’으로 잘못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줄기회에서 바로 잡자는 필자의 간절한 뜻이 내재되어 있었다. ‘깨끗한’의 뜻은 ‘깨끗하다’보다 한층 차원이 높은 표현으로서 ‘구김살이 없고 퍽없이 밝고 깨끗함’을 의미한다는 당시 국어담당 심의린 교무주임의 해설이 있었다.

교가는 3절까지, ‘깨끗한’ 자부심 말기암 숨긴채 식사대접, ‘눈물바다’

한줄기회의 또 다른 성과는 ‘모교의 발자취 좌담회’다. 2007년 1월부터 3개월마다 한 번씩 4회에 걸쳐 진행됐다. 10명의 동문들이 등단해 제한시간 5분을 거의 모두 초과하면서 모교 재학시절 경험과 에피소드 등을 끝도 없이 쏟아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소형 고성능 녹음기를 구입, 이 날의 상황을 전부 녹음했지만 지면이 부족해 지금껏 거의 햇빛을 못보고 있다.

노래자랑 가라오케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 첫 행사에서 이미 한인타운 유명 가수로 명성이 자자했던 박상규(6회) 동문이 대상을 거머쥔은 당연했다. 이듬해 부턴 아예 그의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초청가수로 특별대우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수(?)는 정인철(6회) 동문. 가사를 멋지게 해설해 관심을 끈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노래는 자작곡(이른바





‘한여름의 향연’ 끝났다 대부분 80대 ‘종합병동’

음치)으로 불렸다. 남들이 배꼽을 잡던 말던 '어불관연' 그의 당당한 태도는 한줄기회가 낳은 최고의 스타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안타까운 사연들도 적지 않았다. 최덕희(6회) 동문은 이른바 한줄기회 창립 공신 중의 하나. 창립모임에서 동문들을 픽업하는 등 온갖 꾀를 써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는 다음날 교통사고로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동문 걱정은 접어두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게.

2대 총무를 지낸 이정애(5회)동문의 사연은 눈물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다. 크루즈에 다녀온 후 몸에 이상을 감지한 이 동문은 정밀검진결과 췌장암 말기 확진을 받았다. 그런데도 아무 내색 않고 임원진 전원을 가디나의 한식당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했다. 이 동문 나름의 작별인사였던 것. 그 해 연례모임은 마침 6.25 기념일이었는데 이정애 동문은 이 모임 후 정확히 두달 뒤 이승을 떠났다.

정인철 동문은 역대급(?) 톱싱어 10년 후 다시 모두 볼 수 있기를

이왕에 이야기 쏟아낸 김에 아무래도 다 말해야 할 것 같다. 윤병남(7회) 동문이 2대 회장으로 선임된 첫째, 휴스턴에 사는 큰아들이 사고사를 당했다. 윤 동문 부부는 급히 현장으로 날아가 사태를 수습하고는 곧바로 되돌아왔다. 한줄기 연례모임이 바로 코앞이어서 일단 장례식을 뒤로 미룬 것. 모임의 대임을 무사히 마친 그 다음 주 비로소 장례식을 치렀다. 자식의 장례식도 미루고 한줄기회 회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윤 동문. 그의 동문 사랑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특히 이병웅(10회) 동문의 타계소식은 내게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다.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은퇴 후엔 사진작가, 서양화가, 수필가 등 다재다능은 바로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언젠가 '사대부고가 내 고향'이라고 한 말이 지금도 귓전에 맴돈다. 다행히 아무 고통없이 잠자듯 이승을 떠났으니 그것으로나마 위안을 삼을까.

이렇게 회고하기 시작하니 끝이 안 보인다. 지난 10년 만나서 반가웠고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는 모두 내일처럼 기뻐했다. '회자정리'라고 했던가. 10년 후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 날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6월 30일, 한줄기회는 LA 한인타운의 JJ 그랜드 호텔에서 있는 초여름의 향연을 끝으로 '발전적' 해체를 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역사'가 된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최고참 류문기(1회) 선배는 90세, 막내였던 10회 동문들도 모두 80대로 진입한 상태다. 뒤이어 참여한 후배들도 이미 고회를 지났다. 더우기 연례모임을 준비했던 임원들 모두 80대여서 성한 사람 하나 없는 소위 '종합병원'을 차린 상태다.

애시당초 '한줄기 초여름의 향연'에 올인하기는 임원 모두가 절대 불가능한 건강상태. 그래서 올해 모임을 무사하게 치르면 내년부턴 지역별 소그룹 형태로 이어가자고 연초 임원회의에서 중지를 모았고 연례모임에서 정식 발표했다.

'천우신조'라고 했던가. 이번 마지막 한줄기 모임에서 2부 순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심을 거듭했던 임원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회 박양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기다리던 전화였다. 박 동문이 주관하는 장고팀이 있는데 이름하여 '어울림 경기민요'. 이번 한줄기회 모임에 단원중 5명이 팀이 되어 '장고병창'이라는 주제의 여러 민요를 공연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지난 마지막 모임의 하일라이트는 이렇게 성사된 것이다.

이날 특별히 마련된 3부는 '한줄기회의 창립과 성장 및 앞날'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됐다. 기조연사는 이정화(4회) 회장. 2대 회장을 지냈으나 마지막 회장직을 자진해서 맡아주셨다.

이날 참석자는 40여 명이 넘는다. 류문기 선배 내외, 2회에서 10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후배 동문들, 5회의 송준화 치과부부, 6회의 김정렬 박상규 정인철 부부와 유석환 윤정현 등 8인 고정멤버. 그리고 만년 회장직을 감수하시는 이정화(4회) 내외, 윤병남(7회) 홍보간사 부부, 안재훈(9회) 간사부부, 황주봉(9회) 전 회장 겸 만년 간사 등은 한줄기회의 버팀목들이었다.



남가주 선농합창단 정기공연 '성황'

'우정의 노래' '못 잊어' 등 다양한 장르 선봬

남가주 선농합창단의 제 3회 정기 발표회가 지난 9월 15일 LA 한인타운의 미주평안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채홍석씨의 지휘와 조구순씨의 피아노 반주로 열린 이날 공연은 '우정의 노래' (Stein Song)를 스타트로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김용호 작사, 김동진 작곡), '똥보새' (신천희 작사, 정재원 작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송길자 작사, 임금수 작곡), '못잊어' (김소월 시, 조혜영 작곡),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 작곡, 김연성 편곡), '서플 리듬에 의한 가요' (메들리, 이선택 편곡)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이 이어졌다.

공연 중간에는 메조 소프라노 조지영 님의 '봉선화'와 테너 양두석 님과 베이스 이사효 님의 이중창 '향수', 그리고 소프라노 유희정 님의 '동심초' 등 주옥같은 노래가 미주 평안교회를 가득 메운 300여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공연은 싱얼롱으로 해바라기의 히트송 '사랑으로'를 참석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부르는 감동의 순간을 연출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채홍석씨가 지휘자로 부임한 후 첫 정기 발표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채씨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수학한 정통 뮤지션. 윤병남(7회) 동문으로부

터 지휘봉을 넘겨 받았다.

한편 선농합창단은 지난 2016년 10월 한국 코엑스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 예술제에도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울타리선교회(대표 17회 나주옥 목사) 후원을 위한 음악회에도 참가해 LA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에는 한국에서 온 총동창 합창단 24명도 함께 무대에 섰다.

음악회는 노숙자들의 구제와 선교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자선공연으로 이뤄졌는데 선농합창단은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인정돼 대통령 봉사상을 받는 영예를 함께 누렸다.

미주평안교회 가득 메운 청중 '앙콜'
안방자 단장 "배우자 참여 적극 환영"



채홍석씨 지휘자 초빙, 첫 발표

선농합창단의 안방자(15회) 단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주위에서 과연 순수 고교 동문합창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동문들 간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 만으로도 반갑고 좋아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단장에 따르면 서울사대부고가 남녀공학이어서 쉽게 혼성합창단을 꾸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안 단장은 동문들 뿐 아니라 배우자들의 참여도 적극 권유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처



▲ 안방자 단장

음엔 입을 열기도 부끄러워했지만 이젠 합창의 화음 속에 내 목소리가 실려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져 갈수록 동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170 S. Bimini Place, LA)에서 열린다.

* 문의 : 단장 안방자 (323-627-2600)
총무 부명자 (513-226-0355)

노래하면 ‘다이돌핀’이 듬뿍 엔돌핀의 4천배, 항암효과도

10여 년 전 쯤 호주의 한 의과대학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대상은 코럴 싱어즈, 곧 합창단원들이다. 노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모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들의 건강상태는 정상치를 밑돌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행복도가 정상인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던 것.

조사를 주도한 그리피스 대학의 단 스튜어트 교수는 합창단원들의 삶에 대한 태도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고무됐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가량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98%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스튜어트 교수는 노래(합창)가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더러 폐기능을 증진시키고 특히 신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혼자 샤워를 하며 노래를 불러도 효과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면 유대감이 생겨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노년층, 폐경기인 여성들이 합창단에 가입하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돼 효과가 배가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여럿이 노래를 부를 때 ‘다이돌핀(didorphin)’이 생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다이돌핀은 현대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효과가 엔돌핀의 무려 4,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돌핀은 흔히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피로회복은 물론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다이돌핀은 이보다 수천배의 더 강력한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해서 일부에선 ‘마법의 호르몬’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이돌핀이 나오는 경우는 네가지. 첫 번째는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당해 감동받은 경우, 두 번째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경우,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에 빠졌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 받았을 경우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는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훌륭한 음악에 감동받은 일은 있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의학자들은 다이돌핀이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등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다.

어쩌면 송년 레퍼토리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이 자주 연주되는 것도 사람들에게 연말선물로 감동을 선사해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합창’은 베토벤이 생전에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이다. 4악장에 4명의 독창과 합창이 나오며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서 가사를 따왔다.

“환희여, 신들의 아름다운 광채여, 낙원의 처녀들이여/ 우리 모두 감동에 취하고 빛이 가득한 신전으로 들어가자/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공의 저 편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주님은 계신다.”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작하는 교향곡은 수백명의 합창단원들이 등장해 웅장한 피날레로 끝난다. 감동을 주고도 넘친다. 다이돌핀이 샘 솟듯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노래가 주는 효과...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겠다. 새해엔 좋은 음악, 좋은 생각으로 다이돌핀이 일상에서 차고 넘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 | 박용필(18회)

‘다국적’ 동기생들의 캐나다 여행

호주 등 6개국서... 단풍보다 더 진한 우정 나뉘

안 성 주 (16회)

헬기에서 내려다본 나이아가라 폭포. 거대한 물줄기가 주위를 빙 둘러싼 붉은 단풍 덕분에 묘한 조화를 이뤄내며 장관을 빚어낸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감동을 연출한다고 할까. 붉고 노란 색깔에 함몰되다 보면 왜 캐나다의 국기에 단풍이 그려져 있는지 알만 하겠다.

토론토에 들어서자 도시 속에 공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공원 속에 도시가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길은 온통 울긋불긋, 어느새 내 자신도 붉게 물들어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

우리 16회 동기생들의 캐나다 단풍 여행은 지난 10월 5일 나이아가라와 토론토에서 출발점을 끊었다. 모두 50명. 전세버스를 꽉 채웠다. 출신국은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6개국. 말하자면 다국적 연합군이다. 역시 LA 출신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호스트인 캐나다는 셋. 멀리 호주에서 날아온 박방생, 최순(프랑스), 한명희 부부(독일) 등 모두 정겨운 얼굴들이었다.

토론토에서 퀘벡까지의 길은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환상을 갖게 한다. 중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고풍스런 건물들 사이사이로 고개를 빼꼼히 내민 단풍은 대자연 속 단풍과는 또 다른 매



▲ 헬리콥터로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마친 뒤 단체 기념촬영



▲ 캐나다 단풍은 마치 대자연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환상을 자아낸다.

력을 뿜어냈다. 낭만이 뚝뚝 묻어나는 도시. 바로 퀘벡이다.

몬트리얼을 출발한 버스는 10시간 넘게 지침없이 내달렸다. 지루하기는 커녕 어떻게 이 긴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오페라 가곡에서부터 가요, 민요, 뽕짝 등 온갖 장르의 노래가 입에

서 입으로 씹없이 흘러나왔다. 시간이 여기서 멈춰섰으면 좋으련만... 반세기가 훌쩍 지난 후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코 데면데면하지 않았다. ‘16회’란 동질성에 묻혀 어느새 ‘야, 너, 임마’가 절로 나왔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수생머리 기차여행. 길동무가 돼 나란히 달리던 강물 위로 하얀 물안개가 걷히자 햇살 사이로 산등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마치 레드카펫이 깔린 것 마냥 눈앞이 어지럽다. 단풍의 향연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지.

7박 8일의 여정이 끝나는 10월 12일의 토론토 국제공항. 주정숙 동문의 맨트에 가슴 한 편이 아련히 저며온다.

“단풍보다 더 깊고 진한

우리의 우정... 옛날 벽돌 건물 교정에서 움튼 씨앗이 이제 사랑의 열매로 무르익어 마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것 같네요. 또 만나기를... 아니 못 보더라도 그대들 늘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리운 친구들이여.”

“내 나이가 어때서... 활동하기 딱 좋은데” 류문기(1회) 동문 구순잔치 치러

류문기(1회) 동문의 구순잔치가 지난 6월 23일 LA 인근의 라미라다 액티비티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연회에는 가족은 물론 동문들도 다수 참석해 노선배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다.

류 동문은 인사말에서 “이제 내 나이 겨우 90세다.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다”라고 익살, 박수갈채를 받았다.

10년 전 원로들의 친목모임인 ‘한줄기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는 류 동문은 동문회 일이라면 지금도 발 벗고 나설 만큼 열정적이다.

류 동문은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살아온 이 시대의 산 증인. 본인 자신이 6.25 참전 용사다. 서울사대부고 출신 가운데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은 모두 74명. 류 동문을 포함한 이들 참전용사들은 명파가 모교 캠퍼스에

영구전시 보존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기린다.

윤상열(13회), 문재숙(23회) 동문 ‘자랑스러운 부고인 상’ 수상 영예

윤상열(13회) 동문과 문재숙(23회) 동문이 본국 총동창회가 매년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부고인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동문(국립군산대 교수)은 교향시 ‘전설’을 작곡,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국립극동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에 초청돼 연주를 하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 이외도 한국작곡대상 및 올해의 최우수 예술상 등을 수상해 한국음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동문은 특히 ‘사대부고 찬가’(작사는 13회 김무일) 작곡가로 동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윤 동문의 딸 윤이나(소프라노) 수원대학 음대교수는 지난해 11월 LA 동문들을 초청해 부친의



작품 3곡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동문(이화여대 명예교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23호로 지정된 가야금 명인. 지난 4월엔 텍사스 댈러스의 어빙센터에서 열린 국악대축제에 딸 이슬기씨와 함께 가야금을 연주해 한인들은 물론 미국인 관객들에 깊은 감동을

을 줬다.

문 동문의 큰 딸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톱스타 이하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수로 나와 춘앵무를 공연, 세계인들을 열광시켰다. 문 동문의 오빠는 문희상 국회의장.

시상식은 12월 4일 서울 그랜드 힐컨벤션에서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 진행됐다.

김은숙 교장 미주 5개도시 방문

LA-샌프란시스코-뉴욕-워싱턴-시카고 간담회

모교 이은숙 교장과 서미션 교사(역량강화 부장 겸 연구교사) 일행이 미주총동창연합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기간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과 샌프란시스코,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시카고 등 12일 동안 대륙의 서부와 동부, 중부를 둘러보는 짝짝한 일정이었다.

이 교장은 가는 곳마다 동문들의 따뜻한 배려와 뜨거운 환영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엔 김민주 연합회 회장이 동행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교장 일행의 방문은 연합회가 한국 인천왕복 항공권을 부담했고 각 지역 동창회가 체재비용을 댔다. 교장 일행의 방문을 지역별로 소개한다.

〈로스앤젤레스〉

9월 4일 LA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곧바로 ‘교육의 도시’ 어바인(오렌지 카운티)으로 이동했다. 처음 들른 곳은 UC 어바인. 규모의 방대함에 놀랐고 또 한국과는 달리 정문(교문)이 없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대학 인근의 거리 이름이 하버드, 예일, 코넬, 스탠포드, 버클리 등 미국 명문대학의 이름을 따 만든 것에 감명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노벨상(화학상) 수상자가 한 해에 둘이나 나왔다.

어바인을 맨먼저 들른 진짜 목적은 권영덕(6회) 동문 자택 방문. 모교 후배들을 위해 거액의 ‘독행 장학금’을 쾌척한 분이다. 서미션 교사가 1950년대 학창시절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자 권 동문은 10대로 되돌아간 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권 동문의 회고록 ‘아름다운 추억들’은 모교 도서관에서도 여러 권 배치돼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동문 간담회는 LA한인타운의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교통

혼잡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은숙 교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미션 교사가 모교 70년 발전취를 담은 영상을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감탄이 쏟아졌다.

〈샌프란시스코〉

다음날 5일은 샌프란시스코 동문회 초청으로 골든게이트 브리지(금문교), 피어 등 관광에 이어 서부 최고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둘러봤다. 당초 미국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는 UC 버클리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만나질 뿐이어서 아쉽지만 훗날로 미뤄야했다.

교장 일행의 ‘만나절’을 책임 맡은 이는 곽정연(24회) 동문. 샌프란시스코를 알차게 안내해줬을 뿐 아니라 자택을 오픈, 숙식까지 해결해줬다. 동문 간담회는 점심과 함께 조촐하고 정겹게 진행됐다. 홍경삼(13회) 동문은 영상자료를 보

다가 빙상반 사진에 친구가 나오자 벌떡 무대로 뛰어 올라가 흥분을 참지 못하는 등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로스앤젤레스〉

6일 남가주 선농장학재단 ‘창업자’인 안방자(15회) 동문을 찾아 재단의 ‘I Dream, I Can’ 프로젝트로 미국을 방문한 재학생 다섯명과 인솔교사의 기록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모임에는 최영일(16회) 재단 이사장과 부명자(15회) 동문도 함께 했다.

뽀뽀뽀뽀도 하이라이트는 7일 오전 세리토스의 ABC 교육구와 위트니 하이스쿨 방문이었다. 맨 먼저 면담한 이는 유수연 교육위원장과 메리 수(Mary Sieu) 교육감. 바쁜 스케줄 가운데 교



▲ 미국 방문 첫날인 지난 9월 4일 LA한인타운에 소재한 JJ 그랜드 호텔에서 동문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미션 교사 동행, 부고 70년 ‘영상’ 소개 동문들의 모교 사랑에 “진한 감동” 받아

장 일행을 위해 한시간 넘게 교육구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줬다. 유 위원장은 초등학교 때 이민은 한인 1.5세.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교육계에 대한 영향력이 남달랐다. 한국을 10년 주기로 찾았다는 유 교육감은 서울사대부고와 유 대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해 교장 일행을 고무시켰다.

이어 위트니 하이스쿨로 이동한 일행은 주차장에서 깜짝 놀랄 '사건'을 겪었다. 전광판에 'Welcome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이란 문자가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 전혀 예상치 못한 환대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존 브리클레(John Briquelet) 교장은 마치 풋볼선수를 연상케 하는 덩치였는데 꽤 자상하게 학교 현황을 설명해줬다. 위트니는 캘리포니아주 1위, 전국 순위 4위(뉴스위크지 보도)에 랭크될 만큼 미국 최고의 명문고교 중 하나다. 이같은 명성과는 달리 캠퍼스는 노후돼 일행에게 약간 '실망감'을 안겼다. 그런 가운데 최근 수백만 달러를 들여 지었다는 미디어아트센터

만큼은 첨단시설을 갖췄다. 센터 입구에는 건립을 위해 도네이션해준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역시 미국은 자원봉사와 도네이션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말을 실감한 듯 했다.

위트니와 자매결연을 맺은 유일한 곳은 일본의 고등학교. 캠퍼스 한 칸에 '일본정원'이 있는 걸 보고는 새삼 그들의 '교육 로비'에 감탄을 하기도 했다. 부고와의 결연에 대해 묻자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위트니도 글로벌 교육환경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는 말과 함께.

교장 일행의 위트니 하이스쿨 방문은 미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도 크게 실렸다. 한국 주요 지자체 소속 교육위원들의 '정치적' 방문은 해마다 있어왔으나 교장 등 현장 교육자들의 '실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LA일정의 마지막은 UC샌디에고.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신다정(62회) 동문의 안내로 곳곳을 둘러봤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도서관. '가이절 라이브러리'는 미국의 세계적인 동화작가 닥터수스(Theodor Seuss Geisel)의 이름을 따 만든 것이다.

〈뉴욕 / 뉴저지〉

7일 밤 이른바 '레드아이(red eye)'를 탔다. 5시간 30분 비행 끝에 뉴욕 도착. 이후 일정은 이정우(29회) 뉴욕 동문회장이 주관했다.

8일 간담회는 한마디로 풍성하고 왁자지껄했다. 한근재(24회) 전

임회장이 사진촬영을 자원했고, 조규삼 전 교장이 오셨을 때 회장을 지냈던 권일중(20회) 동문은 당시를 회상하며 모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외도 서정학(10회), 정해민(7회) 동문 등 원로들도 참석해 간담회를 빛내줬다.

뉴욕 일정은 1박 2일. 맨해튼을 비롯해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등. 그야말로 '확확' 스쳐가듯 여기저기를 둘러봤다. 뉴욕서의 주요 일정 역시 학교 방문이었다. 크레스킬 하이스쿨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공교롭게도 이날이 유대인들의 할러데이여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대신 학부 모회 대표 두 분과 면담을 가졌는데 한인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어 사대부고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등 열의를 보였다.

〈워싱턴 D.C.〉

10일 오전 이정우 뉴욕 회장과 조규창(21회) 동문이 직접 번갈아 가며 6시간을 운전해 D.C. 도착. 손명희(23회) 동문회장이 교장 일행을 맞았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 외에도 김정숙(24회), 정영금(31회) 등 '여장부'들이 참석, 저마다 미국서의 인생 개척기를 쏟아내 웃음꽃이 폈다.

다음 날은 마침 9.11 테러 17주기. 성조기가 내걸린 시내를 손 회장 부부가 제공한 캠핑카를 타고 곳곳을 둘러봤다. 미국 최대규모의 의회 도서관을 비롯, 링컨 메모리얼, 한국전 추모비를 찾았다. D.C.의 1박 2일은 그렇게 '아득'!

〈시카고〉

당초 일정에는 없었던 곳이다. 워싱턴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했었는데 시카고 회장인 노성환(18회) 동문이 비행기값을 대겠다고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부득이 일정을 늘려잡아야했다. 2박 3일이 추가된 것이다.

동문 간담회는 이번 여행 중 가장 압권이었다. 이은숙 교장 사진



▲ 미국 최고의 명문 고교인 세리토스의 위트니 하이스쿨을 방문한 이은숙 교장(왼쪽)과 서미선 교사가 존 브리클레 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BC 교육위원장, 교육감 면담 위트니 고교 교장과 교류 논의



▲ 위트니 하이스쿨 전광판

을 인쇄한 결개를 세워놓고 모임이 시작됐다. 노 회장을 비롯해 고대근(20회) 사무총장, 이옥희(2회) 동문, 권오화(8회) 동문, 오세방(11회) 연속자(14회) 동문 부부 등 연로한 동문들도 다수 참석해 교장 일행을 반겼다.

간담회 끝에는 교가를 합창해 남다른 감동을 줬다. 특히 오세방 동문은 자택을 숙소로 제공해 교장 일행에 세심한 배려를 했다. 부고 사랑이 대단한 분 답게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담겼다. 고대근 동문의 유머감각 덕분에 시카고에서의 이틀동안 내내 웃고 지냈다.

서미선 교사는 ‘시카고를 한담미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슴지 않고 ‘정’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 시카고 지역 동문회가 마련한 환영 결개

어뵈었다. 전자 현미경으로 머리카락을 나노 수준에서 스캔해 관찰, 분석하는 수업 등 학생들의 진로에 특화된 교육환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귀국 전날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을 찾았는데 마침 그날 저녁 이곳에서 공연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 교장 일행을 소개받자 즉석에서 공연을 해줬다. 눈 앞의 작은 공간에서 울려 퍼진 선율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

14일 밤 11시 55분. 드디어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4시간 5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시계는 16일 새벽 4시(한국시간)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카고 일정 가운데 월링(Wheeling) 하이스쿨 방문도 빼놓을 수 없다.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처링, 디자인에 특화된 학교로 인근에 공장이 많고 히스패닉계와 아시안이 많은 공립 학교다. 교장과 교감, 코디네이터의 안내로 학교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마침 이탈리아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만나 이들의 소감도 들

“한 분 한 분이 한 권의 책, 보고 배운 것 많아 책임감 느껴”

이 은 속
서울사대부고 교장

10박 12일 간 많은 동문들을 만났습니다. 한담미로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 방문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 들려주신 살아온,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매 순간이 감탄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처럼 행복한 교장이 또 있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출장 길에서 배운 것들이 참 많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한국에서 고민한 것 이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학교든, 도시든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하는 나라,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보고일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허브임을 너무 잘 아는 나라, 도서관을 중심에 놓을 뿐 아니라 높이 받드는 나라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을 열심히 만든다고 하였지만 미국 학교 도서관을 보고 또한 숙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확신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미국학교에 가면 더 많이 배우겠다는 점입니다. ABC 교육감과 교육위원장, 위트니 하이스쿨 교장, 시카고 월링 하이스쿨 교장 등도 뵈셨다고 했으니 내년 여름 교사와 견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보려 합니다.

지난 8월 남가주 선농장학재단이 주관한 우리 학생들의 체험학습도 새해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즘 학생과 학부모들이 저를 보고 묻습니다. “내년에도 미국체험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내 표정이 진지한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I Dream, I Can!”은 좋은 영향을 끼치며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고민하게 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줄리 정 국무부 일본과장 부임

정재훈 동문 장녀... 22년차 베테랑



한인 1.5세 고위 외교관인 줄리 정(16회 정재훈 박사의 장녀)이 최근 국무부 일본과장(director of the Office of Japanese Affairs)으로 부임했다. 직급은 부차관보 대행.

캄보디아 부대사를

지낸 줄리 정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담당한 바 있어 평양을 몇차례 방문하는 등 국무부에서는 손 꼽히는 북핵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한국과장은 일본계인 조이 야마모토가 부임해 대조를 보였다. 이로써 주한미국대사(해리 해리스 전 인도 태평양 사령관)와 국무부 한국과장은 모두 일본계가 맡게 됐다. 해리스 대사는 어머니가 일본계다. 한국과장은 한국 및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및 대북정책 특별대표 대행을 겸해왔던 마크 램버트 전 과장이 북한담당 부차관보대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식인 상태였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일본과장에 한국계, 한국과장에 일본계가 기용돼 미국의 정책이 균형을 잡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줄리 정은 외교관 경력 22년차의 베테랑. 컬럼비아 대학 출신으로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 중국어(광둥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에 능통하다.

남가주 동창회 창립 5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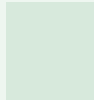
모교 교장도 축하 영상 보내와

남가주 동창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자축연은 12월 8일 송년모임에 앞서 열렸다. 그동안 동문회 발전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원로 동문들이 나와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 본국의 총동창회장장과 이은숙 모교 교장 등도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 장 김민주(21회) 213-268-2301
북가주		회 장 홍성호(36회) 408-759-0581
오레곤		회 장 최완섭(22회) 201-983-2858
시애틀		회 장 한영한(16회) 818-854-4118
시카고		회 장 노성환(18회) 630-269-5566
보스턴		회 장 최한길(22회) 617-733-3709
필라델피아		회 장 이종태(23회) 267-266-2881
뉴욕/뉴저지		회 장 이정우(29회) 914-320-5354
워싱턴 D.C.		회 장 손명희(23회) 301-983-0000
애틀랜타		회 장 이강순(16회) 678-469-7777
댈러스		회 장 김 웅(22회) 214-284-7572
미시건		회 장 신광용(22회) 248-974-5426
오클라호마		회 장 이상강(21회) 918-616-3386
토론토(캐나다)		회 장 민태기(27회) 647-765-2227

졸업식때 받은 ‘독행상’은 내 평생의 스승

내게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그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던 일이다. 그것도 두 개씩이나. 우등상과 ‘독행상’을 받았다. 우등상이야 혼자 받은 것도 아니고, 독행상은 정말 내가 평생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상이다. 한자세대가 아니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독행(篤行)의 사전적 풀이는 ‘정실하고 친절한 행실’이다. 쉽게 말해 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이유로 이런 상을 준 것이다.

과연 내가 ‘독행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아마 이일규 선생님의 작품이 아닐까 짐작이 간다. 화학을 가르치셨는데 명강의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다.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 타의 모범이 됐다면 내게 과분한 상을 주셨던 것 같다. 독행상은 내가 부고 역사상 처음 받았는데 이후에도 수상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이 선생님은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든 장본인이시다. 월사금을 못내 쫓겨날 뻔 했던 나를 구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교장께 청탁을 넣어 아예 수업료 면제까지 받아내셨다. 훗날 내가 모교에 수억원을 출연해 ‘독행 장학금’을 만든 것도 이 같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때는 재정보증인이 미국 영사 앞에서 예금통장을 보여주며 선서를 해야했는데 이 선생님이 서슴지 않고 영사관에 함께 가 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당일 미국행 비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내 인생의 제 2막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선 제일 먼저 찾아뵈신 분도 이 선생님이다. 마포강이 내려다 보이는 상수동의 선생님 댁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른다. 사모님도 선생님 못지않게 나를 귀여워하며 반기셨다. “아이구, 박사님 오셨네”하며 차와 과일, 떡을 내놓으시던 사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 칸이 찡해 온다. 보고 싶은 그 얼굴들.

미국행 비자와 함께 유학의 꿈을 이룬 내가 또 하나 얻은 게 있다. ‘씨니(Sunny)’와 순애보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낀다.

‘씨니’는 내가 대학시절 가정교사를 했던 아이의 누나다. 그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우린 그렇게 만났다.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고작 나이 8년차가 무슨 대수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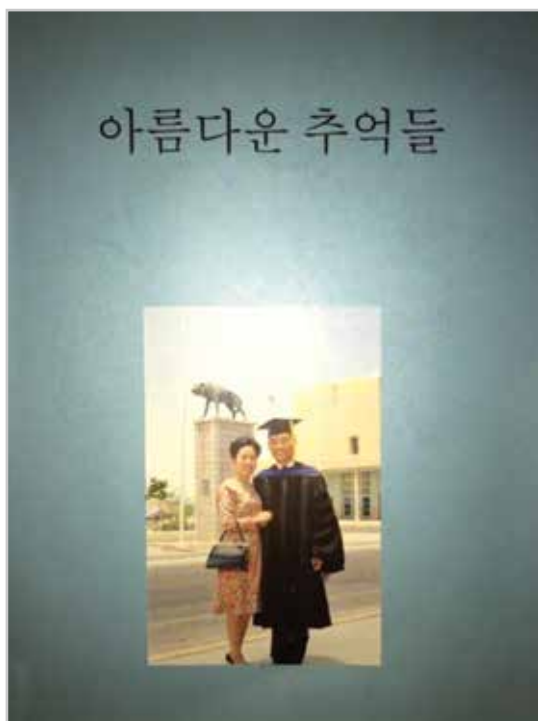
‘씨니’의 원래 이름은 정자다. 일본식이라고 해서 몇년 후 이름을 ‘혜선’으로 바꿨다. 그래서 ‘선’을 ‘씨니’라고 불렀다. 미국식으로. 언제부턴가 나도 ‘씨니’에겐 ‘덕키(Duckie)’로 불렀다. 덕을 미국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우린 처음부터 미국에 살 팔자였던 모양이다.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 ‘씨니’는 여고 2학년. 그집 먼 친척 아저씨의 ‘밀고’로 우리 사이가 들통이 났다. 살갑게 대해줬던 ‘사모님’이 돌변했다. 장충동 부잣집의 딸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아들. 어딜보나 이뤄질 수 없는 조합이었다.

장충동 출입이 금지된 나는 씨니가 보고 싶을 땐 광화문 버스 정거장에서 죽치고 기다렸다. 버스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버스 데이트’마저도 그

리 오래가지 못했다.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운은 남겼다. “유학 가시게 되면 한번 연락주세요.” 이 말에 나는 유학 수속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유학길에 오르기 한 달여를 남기고 장충동 사모님의 심정에 갑자기 변화가 왔다.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된 씨니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살소동을 벌인 것이다. 이에 놀란 사모님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자살소동 남자와 내 사진을 보여주곤 누가 사윗감으로 좋겠느냐고 물었다. 점쟁이 왈, “덕(Duckie)이 한테 시집가면 매일 업어줄 것이고 소동을 벌인 남자가 남편이 되면 평생 친정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닥달할 사람이요.”



회고록 ‘아름다운 추억들’ 출간
아내 뜻따라 모교에 ‘독행장학금’

‘씨니’와의 40여 년 순애보 답아

나는 지금도 자살 소동을 벌인 그 남자가 고맙다. 그가 약을 먹지 않았다면 장모님의 마음이 변할리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점쟁이, 정말 옳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와 씨니는 끊어질 뻔 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나는 사모님이 정말 나를 싫어하지는 않았다고 믿는다. 내 능력과 됴됨이는 맘에 들었지만 집안이 초라하고 게다가 흠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소위 ‘시집살이’ 때문에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앞서 찍은 사진. 왼쪽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헬렌.

돌이켜보면 나의 미국생활은 역마살이 겠다기 보단 운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미국과의 인연은 6.25 때로 거슬로 올라간다. 중학생이었으나 먹고 살기 위해 미군부대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야간 경비원으로. 쥐꼬리만한 봉급이었으나 그래도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제 44 건설공병대. 내겐 첫 직장인 미국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를 해서도 역시 미국과 만났다. ‘뺨’이 없는데도 웬케 미 군사고문단에 배치돼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것. 이렇게 미국과 운명적으로 만날줄이야.

유학은 미국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1963년 9월 15일,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수송선 ‘미첼호’를 타기 위해 인천항에 간 날이다. 귀국하는 미국병사들을 싣는 군함인데 유학생들도 태워줬다. 어머님과 여동생, 그리고 씨니도 나왔는데 놀랍게도 사모님이 그 사이에 계셨다. 얼마나 반갑고 놀라웠던지. 녀죽절이라도 하고픈 심정이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드디어 씨니가 미국에 왔다. 그 때가 1966년 9월 4일. 씨니와의 약속대로 2년 7개월 만에 학위를 땀다.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내 삶의 축복은 씨니를 만나 40여 년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씨니는 지난 2002년 하늘나라로 갔다. 이듬해 아내와의 약속대로 모교인 경기여고와 이화여대에 ‘단혜선 장학금’을 만들어 기부



했다. 내 모교에도 ‘독행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돕고 있다.

지난해 두 아들(데니와 토머스)의 권유로 회고록 ‘아름다운 추억들’을 펴냈다. 쓰다보니 1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 됐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 구성순, 그리고 내게 참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다 먼저 간 아내 단혜선이 책의 주인공들이다.

회고록이 나오는데는 아내의 간병인이었던 정명숙 여사의 공이 컸다. 내가 한글 타자를 못쳐 정 여사에게 농담조로 한글 타자를 배우시라고 하고는 잊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 정여사가 이젠 타자를 칠 수 있다고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거의 10년 만에 출간이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지난 9월 초 모교의 이은숙 교장과 서미선 교사가 불쑥 집을 찾아왔다. 공항에 내리자 마자 달려왔다는 말에 몸둘 바를 몰랐다. ‘독행 장학금’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한국서 준비해 온 감사패를 안기며 두시간 넘게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 교장 일행이 떠나자 문득 65년 전의 일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이 찡해지는 걸 느꼈다.

요즘은 회고록을 영어로 옮기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영어권인 두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다. 처음엔 한 페이지 번역에도 힘이 들었는데 이젠 가속도가 붙었는지 슬슬 넘어간다. 일제 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의 파노라마를 후손들에게 펼쳐보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나는 40년 전 장만한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 주변에선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하지만 글썽,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씨니의 체취가 아직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아서다.

- 약 력 -

1953년	서울사대 부교 졸업
1958년	서울공과대학 졸업
1966년	뉴멕시코 주립대학 공학박사
1966~1967년	모토롤라 반도체 선임연구원
1967~1969년	벨 텔레폰 연구소
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고문
1969~2011년	캘스테이트 풀러턴 교수

글 | 박용필(18회)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절대 No! 변화될 아이들만 선정해 보내 주세요”

김 승 모 (23회)
남가주선농장학재단 사무국장

“이미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 학생들은 가만 뒤도 잘 할 테니까요. 그 동안 잘 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세요.”

‘잘 하지 못한’ 모교 재학생 5명이 인솔교사와 함께 LA를 방문했다. 기간은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남가주 선농장학재단(이사장 최영일) 초청으로 미국을 찾은 이들은 열흘 간의 짧은 방문이었으나 큰 감동을 받고,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해서 돌아갔다. 장학재단의 당초 선



발취지대로 귀국 즈음엔 저마다 변화된 모습이였다.

선농장학재단 측이 내건 선발조건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아마 다른 학교 같았으면 전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 몇 명을 뽑

아 보내달라고 했을 터다. 그러나 학업우수자 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해 달라고 했으니 모교 측은 이 같은 제안에 처음엔 무척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교 측은 학업 성적은 배제한 채 학교 생활 충실도, 미국체험 참여의 진정성, 준비의 충실성, 발전 가능성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학생들을 뽑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은 여학생 4명(김이슬은, 김현아, 오혜인, 고지민)과 남학생 1명(박문배)

등 5명이였다. 최인영 교사(2학년 교사 대표)가 인솔을 맡았다.

장학재단 측은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고려해 최대한 ‘맞춤 여행’이 되도록 힘썼다.

디자이너 지망생 고지민

광고 디자이너가 꿈인 고지민. 그러나 자신이 봐도 한심했다고 털어놓은 그는 나흘을 밤새워 지원서를 썼다. 꼭 뽑혀서 변화하고 싶었다는 것.

라스베이거스에서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광고기술을 직접 체험했으며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기념품 가게에서도 스토리를 이용한 광고기법을 흥미있게 관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꼭 은혜를 갚겠다는 지민 양. 12일 동안 ‘한 여름 밤의 꿈’을 꾸는 것 같이라며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의상 디자이너 목표 김이슬은

김이슬은은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인생 목표다. 넷째날 패션회사 ‘Catwalk to Sidewalk’ 방문이 가장 인상 깊었다. 디자인 오더부터 패턴 뜨기, 재단, 재봉, 포장까지의 전 과정이 한 건물 내에 모두 다 위치해 있다는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고 털어냈다.

회사 투어가 끝난 후 빌리 강 사장님

의 말씀은 인생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성공하기 위해선 계속되는 실패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하며 성장한다.”

관제사가 꿈인 오혜인

어릴 때부터 에어쇼 영상을 보며 비행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오혜인. 그래서 꿈이 항공관제사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관제사를 평생의 직업으로 정했다는 혜인양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하늘의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해외여행 경험이 없어 인천공항은 물론 외국 공항의 관제탑을 사진으로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미국 최대 공항 중 하나인 LA국제공항을 체험할 수 있어 벌써 꿈의 절반가량은 이룬 것 같이라며 흐뭇해 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김현아

김현아는 이번 방문단 가운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 어렸을 때 맥

시코로 이주했는데 지난해 한국으로 역이민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부고에 편입해서도 처음 몇달 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학업 성적은 최하위로 떨어져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서 마음을 고쳐잡고 호텔리어의 꿈을 꾸게 됐다.

아직은 한국어 보다 스페니시나 영어가 더 익숙하지만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발판삼아 유능한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일점’ 박문배, 엔지니어가 꿈

박문배는 막연하나마 에너지 엔지니어가 되기를 꿈꿨다. 이번 미국 여행 덕분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중 모하비 사막에 세워진 엄청난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발전소 때문에 주변의 생명체들이 많이 죽는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미국이 세계 최첨단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재생 에너지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느



남가주 선농장학재단
모교 재학생 5명 초청,
열흘 일정으로 LA 방문

켰다.



‘I Dream, I Can!’



“I Dream, I Can!”

“나도 꿈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번 모교 재학생 초청 프로젝트 명칭이다. 계기는 지난 5월 13일 열린 선농축전과 신축 모교 개관식. 안방자 장학재단 고문이 이은숙 교장을 만나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과거 어렵게 학창시절을 보내며 미국에서 인생역전을 이룬 선배들이 비슷한 환경의 후배들을 초청, 그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는 프로젝트, 바로 “I Dream, I Can!”이다. 어린 후배 학생들에게 멘토링과 코치를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바탕이 됐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안방자(15회), 박부강(16회), 최영일(16회), 박영훈(21회), 김승모(23회) 등 다섯 명의 동문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처음 모임에서 준비위원들이 1만4000 달러 가량을 모금하는 등 재원도 마련했다. 이 기금은 남가주 선농장학재단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선후배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주요일정〉

- 8월 14일 LA도착,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Walk of Fame), 돌비 시어터, 할리우드 하일랜드 몰
- 8월 15일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 US뱅크타워, 환영디너(안방자 동문 자택)
- 8월 16일 Catwalk to Sidewalk 방문, 파이낸스 원 방문, 폴 게티 미술관, 할리우드 보울
- 8월 17일 유니버설 스튜디오
- 8월 18일 미국대입정보 박람회, 디즈니랜드, 그리피스 천문대
- 8월 19일 USC 캠퍼스 투어, 샌타모니카
- 8월 20일 FIDM 및 UCLA 캠퍼스 투어
- 8월 21일 그랜드캐년-라스베이거스 투어
- 8월 24일 귀국

“선배님들의 배려심에 큰 감동”

최 인 영
(인솔교사)

이번 여행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그 꿈에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인솔교사인 저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크게 배운 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일을 하도록 만드는 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 학생들은 선배님들의 따뜻한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녁마다 하는 평가회에서 그와 관련된 소감을 많이 얘기하더군요.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유서가 깊어 미국 동창회에서 학생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대상 학생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전교에서 1등과 2등 두 명만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고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잘 하고 있는 학생들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큰 학생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당장의 성취가 아니라 간절함을 보고 선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의 배려심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 별명은 ‘멸치’입니다. 명함에도 그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멸치는 음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루가 되거나 국물이 되어 다른 음식의 맛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멸치 같은 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요리할 때 그 맛을 도와줄 수 있는 멸치같은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아이들에게 멸치같은 경험이 됐을거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뒤 “아들아, 딸아,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갔었던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미국 일정 마지막 날 달리는 차 안에서 이 글을 씁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하시고 준비해 주신 선배님들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며 배려의 상징으로 늘 기억하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 선배님들, 진정 고맙습니다. 깊은 배려 가슴 한켠에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남가주선농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조운제, 김종범 ... 12월 8일 송년모임서 수여

남가주 선농장학재단이 2018년도 장학생 두 명을 선정, 발표했다.

조운제 군은 USC에서 화공학(chemical engineering)을 전공하고 있는 엔지니어. 현재 4학년으로 내년 졸업 예정이다.

조 군은 남가주동창회 총무로 봉사하고 있는 조남중(34회) 동문의 차남이다.

김종범 군 역시 과학도. 캘폴리 샌루이스 오비스포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다.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



▲ 조운제 군



▲ 김종범 군

을 펴고 있는 모범생. 김상진(42회) 동문의 차남이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동문 자녀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재단 측은 지난 11월 15일 신청접수를 마감, 이 가운데 두 명을 엄선해 최종 선발했다.

한편 장학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기부자들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문들의 많은 후원을 바라고 있다.

▶ 문의 : 김승모 사무국장(213-270-3376)

하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

을 하반기 정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17일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심재호(27회) 이사장을 비롯해 김민주(21회) 회장, 윤정현(6회), 김경자(13회), 최영일(16회), 계인려(17회) 동문 등 모두 18명.

이날 모임에선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12월 8일로 예정된 총회 및 송년회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원로 선배들을 위한 카폴 등 차편을 제공하고 시간도 오후 5시 30분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구회 골프 토너먼트 '성황' 챔피언 성한석, 메달리스트 권영렬

청구회(회장: 22회 박흥주)의 올해 마지막 토너먼트가 지난 10월 20일 샌후안카피스트라노의 샌후안힐스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참석한 골퍼는 14회부터 27회까지 모두 25명이나 돼 모처럼 성황을 이뤘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챔피언: 성한석(16회), 메달리스트: 권영렬(20회), 특별상: 박영희(17회), 장타상(남): 김지백(준 27회), 장타상(여): 윤재옥(27



회), 클로스(남): 김민주(21회), 클로스(여): 이정혜(17회).

한편 이번 대회에는 20회 김영한 동문과 김종욱 동문이 처음 참가해 환영을 받았다. 이외도 박준옥(17회) 동문의 부군(앤드루 서)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실력을 발휘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권상덕(14회) 동문, 김승모(23회) 동문, 권영렬 동문 등이 선물 및 현금 도네이션을 제공했다.

▶ 2회 오영균 동문 감사패 받아



오영균 동문이 지난 6월 26일 소망 소사이어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인회계사(CPA)인 오 동문은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의 비영리단체 설립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재무관련 일체를 무보수로 도왔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곧 '웰다잉'을 캐치프레이즈로 발족한 단체다. 소망유언서 작성, 긴급연락처 카드 발급, 시신기증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생명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에 356개에 이르는 우물을 파줘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오 동문은 소망 소사이어티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회계처리와 감사를 해 한인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 16회 김윤중, 박찬중 동문 LA 방문

지난 7월 20일 한국에서 김윤중, 박찬중 두 동문이 방문, LA지역 동문들이 부부동반해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모두 22명으로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두 동문은 다음날 남가주선농장학재단이 주관한 모교재학생 초청 프로젝트인 'I Dream, I Can!'의 준비모임에도 참석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준비위원들을 격려했다.

김 동문은 이전 총동창회장을 지내며 모교 교사신축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10월 3일에는 황정한 동문이 LA를 찾아 환영모임이 강남 회관에서 열렸다.



▶ 8회 남미 아르헨티나 크루즈 떠나

12월 4일 8명이 남미 크루즈를 떠났다. LA 롱비치에서 출발해 아르헨티나를 돌아오는 한 달 여의 긴 여정이다.

동기회는 해마다 크루즈를 떠난다. 그동안 멕시코 리비에라(8일)를 비롯해 알래스카(10일), 파나마 운하(19일) 등지를 갔다왔는데 이번 남미여행이 가장 긴 코스다.

동기회의 비공식 캐치프레이즈는 '9988123.' 풀이하자면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하루 이를 앓은 뒤 사흘째 되는 날 고통없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조금만 아프고 죽는다는 걸 위트있게 표현한 말이다. 한마디로 '웰다잉(well dying)' 하자는 것이다.

구호를 실천하려면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뇌도 건강해야 할 터다. 그래서 모임도 꾸준히 갖는다. 두 달에 한 번 거르지 않고 LA의 용수산, 조선갈비 레스토랑 등지에서 모여 '수다'를 즐긴다.

지난 2월엔 용수산에서 박한영 동문의 팔순잔치(사진)를 성대(?)하게 치렀다.

▶ 18회 노찬용 동문 장남 피로연

장남 결혼 피로연에 동기생들이 거의 모두 '집합'해 인기를 실감.

피로연은 지난 6월 11일 LA 한인타운의 용수산에서 열렸다. 동문들을 포함해 하객이 거의 250명이나 몰려 성황을 이뤘다.

아들 데이빗은 유타주립대학교 교수(영문학). 며느리 켄드라 역시 같은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재원이다.



▶ 11회 김영교 동문 부군상



김영교(시인) 동문의 부군 김태훈 집사가 숙환으로 타계했다. 지난 10월 4일 로즈힐스 메모리얼 팍에서 열린 천국환송예배에는 동문들을 비롯해 문인 등 500여 명의 조객이 참석해 고인의 올곧고 따뜻한 인품을 추모했다.

1965년 미국에 유학, 샌프란시스코 대학(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고인은 이듬해 김 동문을 만나 결혼, 슬하에 두 아들(폴, 존)과 손주 여섯을 두었다.

그가 창업한 김벌리 엔터프라이즈는 국방부에서도 납품을 받아 줄 정도로 제품의 질을 인정 받았다.

큰 아들 폴(재우)은 부부의 신앙을 이어받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주변에 따르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부모가 살고 있는 토런스 인근으로 이사해 간병에 힘썼다.

▶ 12회 김창욱 동문 소천

김창욱 동문이 오랜 숙환으로 타계했다.

장례식은 지난 11월 29일 노획에 소재한 한국장의사에서 유족과 친지,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엄수됐다.



▶ 31회 강태완 동문 평통 정무분과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LA 협의회 정무분과 위원장과 정치력신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동시에 선임되었다.

정치력신장 특위는 미 주류사회에서 한인들의 정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통의 핵심 사업이다. 강 동문은 지난 박근혜 정부(17기)에 이어 이번 문재인 정부(18기)에서도 발탁돼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자문위원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남가주 총동창회 수석부회장과 미주 총동문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강 동문은 이외도 재미한국영화인협회의 이사로서 영화인들의 교류는 물론 영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주 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남가주 동창회 단체장 대표

선농합창단	단 장	안방자(15회)	323-627-2600
선농장학재단	이사장	최영일(16회)	213-604-5978
선 기 회	회 장	이석규(16회)	310-650-8880
청 구 회	회 장	박흥주(22회)	909-856-6083
다 원 회	회 장	조남중(34회)	213-210-8435

남가주 동창회 기수 대표

1회 류문기(818-875-1571)	23회 이매자(213-591-0311)
2회 이중희(310-710-0536)	24회 김영태(213-700-5591)
3회 윤응중(626-652-1953)	25회 차학송(310-293-2663)
4회 이정화(310-386-4046)	26회 백남수(213-392-7633)
5회 송준화(951-226-4745)	27회 김흥숙(310-387-7422)
6회 윤정현(310-619-8257)	28회 김 건(213-453-3764)
7회 윤병남(714-396-3941)	29회 신용철(213-605-1636)
8회 김병천(818-577-6565)	30회 정재황(858-397-4587)
9회 공상원(714-726-3343)	31회 강태완(213-550-7981)
10회 호성진(310-415-7260)	32회 이충호(323-806-6078)
11회 전건식(213-507-8802)	34회 조남중(213-210-8435)
12회 김명신(818-389-1735)	35회 이종신(310-438-0358)
13회 김경자(213-389-3133)	36회 김상훈
14회 권상덕(310-779-3830)	38회 차제명(213-434-4056)
15회 서기현(213-604-1669)	39회 정현진(213-820-1330)
16회 최영일(213-604-5978)	40회 노정식(213-216-6429)
17회 계인려(818-648-8273)	42회 김상진(818-448-5335)
18회 박용필(213-247-7187)	44회 윤성룡(213-434-2119)
19회 유금혜(310-827-0231)	45회 조재경(213-453-9638)
20회 권영렬(213-272-6262)	47회 구송영
21회 박영훈(818-808-3931)	48회 윤대규(213-393-9690)
22회 심종택(626-643-2307)	62회 권수지(917-592-6273)

북가주

곽정연 동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당선 '쾌거'

곽정연(24회, 사진 가운데) 동문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일궜다.

지난 11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곽 회장 당선자는 커뮤니티의 화합과 한인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곽 동문은 부동산 투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궜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지난 1년 동안 분규가 끊이지 않아 한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었다.

곽 동문은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면 한인회 재산세 체납 등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 동문이 발탁한 임원진은 법률, 재정, 사회복지, 시니어 의료, 건축 관리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여론을 수렴하며 한인들에 봉사하겠다"고 말한 곽 당선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인재들을 영입, 한인회가 명실공히 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동문의 31대 회장 취임식은 12월 22일(토) 오전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시애틀

야유회 19명 참석 '성황'



동문회(회장 한영한, 16회) 여름 야유회가 지난 8월 18일 사마미시레이크 파크에서 열렸다. 참석 동문은 모두 19명.

특히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김순홍(13회) 주정숙(16회) 동문 부부가 모임에 나와 축하를 받았다. 김 동문은 "야유회 모임을 통해 선후배간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문회는 연말모임 대신 새해 초 김종숙(16회) 동문 자택에서 신년 하례식을 갖는다.

워싱턴 D.C.

올해 마지막 골프 모임 안태민 동문 자택서 친교



올해 마지막 골프 모임이 지난 11월 7일 버지니아주 펜더브룩골프클럽에서 열렸다.

모두 10명의 동문들이 참가했는데 안태민(14회) 동문이 자택에

서 푸짐하게 저녁을 제공하는 등 동문들이 모처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동문은 안태민 동문을 비롯해 김정숙(20회), 손명희(23회), 김홍진(23회), 이근일(29회), 황규주(29회), 심상국(29회), 정영수(30회), 정경금(31회) 등이다.

필라델피아

가을 정례모임 개최, 주영숙 동문 추모

가을 정례모임이 지난 9월 20일 뉴저지 체리힐에 소재한 비원식당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동문 네 부부는 더 링크스 골프클럽에서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골프모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김내섭(9회) 동문. 팔순이 넘었는데도 젊은이 못지않은 기량과 장타력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비원식당 모임엔 모두 16명의 동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종태 회장은 모교 이은숙 교장의 미국방문과 미주총동창연합

회의 결성 및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 8월 중순 민병권(3회) 동문과 이인세(5회) 동문의 오하이오 이주 소식을 전했다.

한편 모임에선 지난 8월 29일 타계한 주영숙(14회) 동문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9월 23일엔 여러 동문들이 조병우(25회) 목사가 시무하는 필라델피아교회 예배에 참석해 교회 창립 9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시 카 고

이옥희 동문 종이공예전

이옥희(4회) 동문의 종이 공예전이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한인문화회관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200여 점.

이 동문은 6.25 때 간호장교로 복무한 참전용사다.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에 이민와서도 줄곧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다.

18년 전 취미로 종이공예에 입문한 이 동문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예술의 경지로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로 언론인 육길원 동문, 세계한인교류협력 대상



원로 언론인 육길원(11회) 동문이 세계한인교류협력 대상을 받았다. 육 동문은 지난 10월 4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지명돼 메달

과 기념패를 받았다. 이날 수상자는 해외 인사로는 육 동문과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두 명 뿐이었다.

주관단체는 세계한인협력기구로 12년 전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과 황우여 전 사회 부총리 등이 대한민국과 해외동포 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조직한 초당적인 국회재단법인이다. 국내외에서 민족과 조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힘쓴 인사 중 업선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육 동문은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떠오른 상념은 망국의 서러움을 안고 북만주로, 연해주로, 사할린으로, 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떠나야 했던 ‘코리아 디아스포라’였다. 나라는 백성을 내버렸지만 백성은 나라를 찾았다.

한국 방문 중 국군의 날을 맞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에는 맥아더 장군이 한 말이 벽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 ‘이 나라가 이 초토 위에서 100년 안에 다시 일어난다면 이것은 기적이다’라는 문구였다.

그러나 우리는 1세기가 아니라 1세대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열사의 증동 노무자로,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로, 월남 땅 전장으로 달려갔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진취적인 민족의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는 그들을 상기하고 기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애틀랜타

‘군가 작곡’ 이희목 동문, 국방장관 감사패 받아

이희목(3회) 동문은 애틀랜타 사대부고 동문회의 정신적인 지주다. 요즘 보행이 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동문회 행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이 동문은 얼마 전 한국 국방부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아 한인 사회에서도 유명인사로 존경받는다. 군가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이 동문은 1968년 ‘향토예비군가’를 비롯해 ‘맹호부대’ 노래 등 다수의 군가를 작곡했다. ‘향토예비군가’는 가수 토니 안이 신세대 취향에 맞게 리메이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이영섭 중령은 “이희목 선생은 향토예비군가를 비롯해 지금도 병영에서 애창되고 있는 여러 곡의 군가를 만들어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와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지리적 여건상 약식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초등학교 시절 졸업장을 받는 것 처럼 기쁘다”며 “국

방부가 군가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시 군가가 너무 형편없어 직접 작곡해

보기로 했다”는 이 동문은 “한 번 작곡하고 나니 계속 요청이 들어와 군가전문 작곡가처럼 됐다”고 회고했다.

사대부고 재학 중 취주악반에서 활동한 이 동문은 1962년 KBS 창립 당시 음악계장을 맡았다. 이후 주월 한국군 방송국, 기독교방송 음악부장, KBS 합창단장을 역임한 원로 음악인이다.

군가 외에도 정미조가 부른 ‘개여울’ 등 다수의 히트송을 작곡했으며 동아방송과 KBS의 로고송도 그의 작품이다.

지난 1979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 동문은 2002년부터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다.



나의 '미니밴' 대륙횡단기 버킷리스트 1순위 '아메리카 더 뷰티풀' 체험

노 찬 용 (18회)

대장정의 첫 날, 집에서 차를 몰고 5번 프리웨이에 들어섰다. 순간 아주 오래 전 내 기억의 한켠에 포개져 있던 그 장면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해 흠칫 놀랐다. 신혼여행때 들렀던 그랜드 캐년이 문득 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때 받은 충격이란. 그때 처음으로 신의 존재를 믿게 됐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찌 이런 걸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캐년 정상에서 아내에게 새끼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다. “우리 내년에 꼭 대륙 횡단을 해봅시다.” 셜을 해보니 꼭 35년 전이다. 이제야 약속을 지켜 미안할 따름이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나를 알게 될 때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한다고 한다. 4년 전 암에 걸렸을 때 버킷리스트를 만들며 대륙횡단을 1순위로 올려놨다. 늦었지만 아내와의 약속도 지킬 겸, 아내는

마치 소풍가기 전의 초등학교 학생마냥 두어 달을 들떠 지냈다. 인터넷을 뒤지고 공부하고, 보고 싶은 것들을 깨알같이 메모하며. 당초 미니밴을 빌리려 했는데 예상외로 비쌌다. 그럴바에 차라리~. 10만 마일이 넘는 혼다 오디세이 중고 미니밴을 5,500 달러를 주고 샀다. 바다가 깨끗해 갔다와서 되팔면 본전은 충분히 뽑을만 했다. 안전운행을 위해 타이어 네개와 타이밍 벨트를 새로 교체했다. 뒷 좌석을 모두 떼어내고 매트리스를 깔고 보니 훌륭한 침실이 됐다. 호텔비를 아껴보려는 심산으로 미니밴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대박’을 쳤다.

운전도 편할 뿐더러 잠자리도 그렇게 쾌적할 수 없었다. 캠프그라운드(주로 KOA 이용)마다 샤워와 세탁시설은 물론 전기도 맘대로 쓸 수 있게 돼있어 매트리스 위에 전기담요를 깔면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다. 여행 중 에어비앤비(Airbnb)도 가끔 이용했지만 좀 불편했다. 지나고 보니 차라리 캠프그라운드가 훨씬 좋

았다는 생각이 든다.

캘리포니아를 떠난 우리는 애리조나, 콜로라도를 거쳐 캐나다를 통과, 동북부로 차를 몰았다. 대서양 해안선을 따라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켄터키 등 중부를 거쳐 뉴멕시코 등 남

부를 돌아 집으로 왔다. 9월 15일부터 10월 27일(43일)까지의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다. 주행 거리는 꼭 1만 6,650마일.

들른 곳은 국립공원 14곳을 포함해 모두 23군데다. 그 중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았는데 내 대답은 한결 같았다. “다 좋았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Bad Land, 콜로라도의 Sand Dune, 메인주의 Acadia, 버지니아주의 Luray鍾유석 동굴, 뉴멕시코주의 Calsbad 동굴 등 감탄사를 내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 나이에가라 폭포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찰각!

은퇴자의 로망 ‘크로스 컨트리’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 실감

왜 중국인들은 미국을 ‘美國’이라고 표기했는지, 일본은 또 ‘米國’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될 만도 했다. 돌아다니다 보니 이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울수 없었다. 휴가철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미국만한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는 없다. 오죽했으면 중국인들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아름답다고 해서 美國이라고 이름지었을까. 먹거리가 부족했던 일본인들은 광활한 대륙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그렇게 부러웠나보다. 쌀이 많이 나는 나라.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한나절을 달려도 옥수수, 밀 밭이다. 최첨단산업국이라기 보단 세계 최대의 농업국이라고 불려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지 싶다.

70대의 로망이라는 크로스 컨트리. 솔직히 여행을 떠나기 전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내 나이 일흔 둘인데 체력이 받쳐줄까. 한 번은 뉴멕시코주의 White Sand National Monument에서 ‘커피록’ 차림의 부부를 만났다. 나이가 80대 중반. 정말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이번 여행에서 새삼 깨달았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하는 70대도 적지 않았다.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봤다. 산소통을 메고 트레일 코스까지 따라다니는 걸 보곤 감동 또 감동. 그 나이에, 그 몸매 여행을 하다니. 믿기지 않겠지만 현실이었다.

달리는 특급호텔, 아내와 오봇이

이번 여행에서 '코리안 파워'를 실감할 수 있어 좀 뿌듯하기는 했다.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한 미니밴

한국어였다. 국립공원마다 한글 안내책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꽤 됐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배를 탔는데 관광객이 절반은 중국인, 나머지 절반도 한인(한국인)들이었다. 안내방송에도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가 흘러나오고.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선 색다

른 경험을 했다. 대학 설립자로 알려진 존 하버드(1607~1638)의 동상에서다. 의자에 앉아있는 하버드의 왼쪽 구두 코뚜이 반들반들 윤이 났다. 사람들이 하도 만져댄 탓이다. 구두를 만지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관광객들이 넘쳐났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한국인들이었다.

구두를 만지고 또 만지며 자녀들의 하버드 입학을 빌었을까.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한국인들의 교육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참 대단한 민족 아닌가.

나름 조심운전을 했는데도 딱 한 번 걸렸다. 러시모어의 큰바위

얼굴을 보러가던 중이었다. '죄명'은 속도 위반. 시속 45마일 존에서 75마일로 달렸으니 걸릴만도 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며 위반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자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다. 딱지를 땄까 말까 하다가 "조심해 운전하라"며 면허증을 되돌려주는 게 아닌가. 휴우~, 그 예쁜 여자

경찰관이 그날 따라 더 예쁘게 보였다.

캘리포니아가 왜 살기 좋은지도 이번 여행길에 새삼 느꼈다. 시카고 등 대도시는 앞과 뒤, 옆에서 뱅뱅 경적을 울려대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다. 뭐가 그리 불만이고 급한지. 주차요금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어떤 곳은 고작 두 시간 주차에 무려 29달러를 받았다. 세상에~. 'Toll fee'는 또 어쩔고. 어느 톨게이트는 돈 받는 사람이 없어 그냥 지나갔더니 지금도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그나마 개스값이 캘리포니아 보다 갤런당 1달러 가량 싸기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좀 과장해 미쳤을 것 같다. 그래서 뉴욕이나

시카고 등 대도시에선 차라리 여행사에 돈을 주고 1일 관광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란 생각이 든다.

이제 대륙횡단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꿀팁 몇 가지를 드린다. 우선 차량은 미니밴을 강추.

가능하면 옷가지 등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 완전 초보여서 너무 많이 챙겨 갔다. 시기는 여름의 끝자락인 9월이 최적기다. 비수기인데다 춥지가 않아서다.

음식은 핫반을 비롯해 마른 반찬 몇가지만 준비해 가면 된다. 요즘은 웬만한 도시마다 한국마켓(또는 아시안 마켓)이 있어 현지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꿈 꾸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다. 내년 또 한차례 대륙횡단을 계획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씽씽! 세 번째 허니문엔 벌써 가슴이 벅차 오른다.



▲ 하버드 설립자의 동상. 왼쪽 구두 코뚜이 반들반들 윤이 난다. 왜 그럴까.



▲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작된 노아의 방주.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 아크 인카운터에 최근 오픈했다.

동창회 연회비 납부 캠페인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듭니다”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동창회의 각종 행사,
모교 지원 및 동창회보 발행경비 등으로 소중하게 쓰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희망이 돼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래 첨부한 회비 납부서에 내용을 기입하신 다음 점선 부분을 잘라 봉투에 넣어
체크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사대부중·고 동창회 연회비 및 후원금 납부

Make Check Payable to: **SNU High School Alumni**

이름	() (회)	() \$30
주소		() \$100
전화		() \$200
이메일		() \$300
		기타금액: \$

Send Check to SNU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 13347 Fern Pine Circle, Cerritos, CA 90703

“축하합니다” 미주총동창연합회 창립



서울사대부고 21회 동기생 일동



“ 축 하 합 니 다 ”

미주총동창연합회 창립



Peter Roh
CEO, CPA, CMA, MBA, ICCRC

Immigration | Accounting & Taxation | Biz Consulting | Biz Brokerage

**GLOBAL TAX SERVICES
PROFESSIONAL CORP.**
IJU CANADA INC.
GLOBAL BIZ CONSULTING INC.

Head Office:
152-7181 Yonge St.
Thornhill ON L3T 0C7 Canada
Tel. 1-905-731-0806 Ext 21, 1-866-369-0806
Fax. 1-905-731-0878
Cell. 1-647-226-1661
proh@globaltax.ca proh@globaliju.com

TORONTO MONTREAL SHANGHAI MOSCOW IRAN SEOUL



Precision Engineering, Inc.

MYRON YOO
PRESIDENT

TEL: (310) 538-0015 2141 W. 139TH ST.
FAX: (310) 538-9050 GARDENA, CA 90249
myronyoo@centurype.com www.centurype.com

정 경 금 공인회계사

Kay K. Chung, CPA, 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counting & Consulting Services

Jackson Place
966 Hungerford Drive, 22-B Tel: 301-340-2002
Rockville, Maryland 20850 Fax: 301-340-2077
kaychung@verizon.net kaychungcpa@verizon.net



Jeny Kwak Weber
곽정연 / Vice President
CCIM Candidate
BRE #: 01383036

San Francisco New Star Realty & Inv.
Commercial & Residential Real Estate Investment

3626 Geary Blvd., Suite 208, San Francisco, CA 94118
7033 Village Parkway, Suite 210, Dublin, CA 94568
3400 El Camino Real, Suite 9, Santa Clara, CA 95051

Cell: (650) 544-6099
Email: Jenykwak@gmail.com
Website: www.norcalnewstarrealty.com/jenykwak





FINE DENTAL LAB



한 근 재 (24회)

Tel. 201.251.8455
Cell. 201.248.7699
215 Brookside Ave.
Hohokus, NJ 07423

Chong Taek Shim
Financial Professional
CA Insurance License # OH62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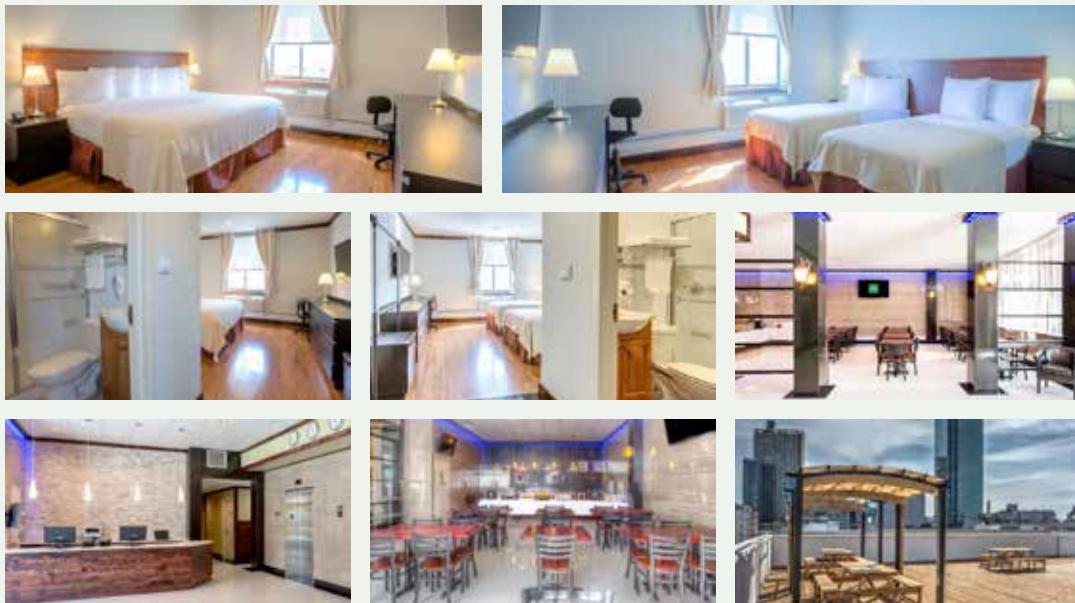


Prudential Advisors
3530 Wilshire Blvd., Suite 1360
LA, CA 90010
Tel. 213-884-1737 / Fax. 877-840-6618
Cell. 626-643-2307
chong.shim@prudential.com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44-04 21st Street,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
718-406-9788

www.lichotelny.com



김승호(23회) · 김지화